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퇴출 빨라진다

행자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비 광역 200억, 기초 100억 이상 '사업실명제'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담당자 실명과 추진 배경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지방공기업 해산명령 절차가 명확해져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이 빨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

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담당자, 추진배경, 진행경과 등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더 엄격해진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신설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외부기

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나 외부기관 선정이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맡겨져 있어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보면 신설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과 절차도 분명해진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청산명령 근거가 있지만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돼 자치단체와 주민의 부담을 키우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이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행자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해

산을 요구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이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해산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방공기업평가를 경영평가기관에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룡택지개발 용역 40억 특혜의혹

전남개발공사 관련자들 소환 조사

광주지검 목표지정

광주지검 목표지정 관계자는 21일 전남개발공사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관련, "최근 압수수색물과 계좌추적 분석을 마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관련자들에 대한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책임감 리용역을 해 4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당시 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청했고,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 통합과 화합 출발점 되었으면"

새누리 시당, 5·18단체 사과 환영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21일 "5·18단체가 김부성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광주일보 21일자 3면)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5·18단체의 사과를 계기로 삼아 광주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또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숭고한 희생정신의 표본이다"며 "새

누리당은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을 새롭게 다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일부 참석자로부터 물세례 분변을 당해 도중 행사를 떠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김정길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5월 단체 대표 4명은 국회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김 대표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

새정치 전국청년위 부위원장에

광주시의회 심철의(서구 1) 운영위원장이 20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심 위원장은 "전국 청년위원회 정호준 위원장과 함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



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만큼 민주주의의 고향인 광주에서부터 청년들에게 활발한 정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 광주YMCA에 분향소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23일)를 앞두고 21일 오후 광주 YMCA 무진홀에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추모식은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에너지기술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업무협약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남개발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태양열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성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기술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인허가 등 행정업무 지원을, 전남개발공사는 실증단지 부지 제공,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연구개발(R&D)사업 공동 수행과 실증단지 운영관리 등을 맡게 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 및 정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방부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 협의"

방위사업청 "사드 부적합 판정 사실 아니다"

국방부는 21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요청하면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 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드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도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013년 4월 말~5월 초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했으며 사드에 관한 설명도 들었으나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캐리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 정부 내부에서 오가는 논의에 대해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신이 캐리 장관의 방한에 동행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사드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는 게 하프 대변인 대행의 설명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4년만에 연다

30일 싱가포르서

대북 공조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이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한미군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회담 개최 날짜는 사실상 아시아안보회의의 이틀째인 30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직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입출금이자유로운 **연 2.10%** (금역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동강대학 **263-0136** (말바우사거리)
두암신협 **264-1232**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부영아파트 **572-9511** (첨단지점 (호반이파트 청문 맞은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우울신 여성' 희망 31-58세 |
| | |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